

성도의 벗 4 1998

벌채 목록 : 어택이탄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TARSON

5월 어린이내선



표지 :

앞표지 그림: 델 파슨, 그가 살아 나셨느니라

뒷표지: 왼쪽으로부터: 그림: 아인리히 호프만, 게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 칼 아인리히 블로흐, 십자가에 달리심, 덴마크 프레드릭스보흐 국립 역사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 게재함. 그림: 칼 아인리히 블로흐, 의심하는 도마

어린이란 표지:

그림: 델 파슨, 어린이와 함께 한 그리스도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보라 네 어머니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18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함 로버트 엘 밀렛
- 26 "일곱 우리의 음성"
- 32 러시아에서의 신앙의 유산 게리 브리우닝
- 42 치유로 가는 여정

청소년란

- 8 예수님 이야기 리처드 엠 홀니
- 16 구세주에게 초점을 두고 부활절을 기억함 리사 엠 그로버

정기 특별 기사

- 1 애독자 편지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

어린이란 (별책 부록)

- 2 친구 사귀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휴고 로페즈 디엔 워커
- 5 물문경 이야기: 물문경 약속
- 6 함께 나누는 시간: 그 곳에 같이 있습니다 시드니 레이놀즈
- 8 "옳은 일을 선택하라" 실러 일 워드
- 11 부활절 퀴즈
- 12 보고 배우기: 연차 대회 활동
- 14 어린 친구를 위하여: 가장 크게 감사할 일
새뮤얼 펄시퍼
창문 그림 로시 섀트론



어린이란,
14쪽 참조

8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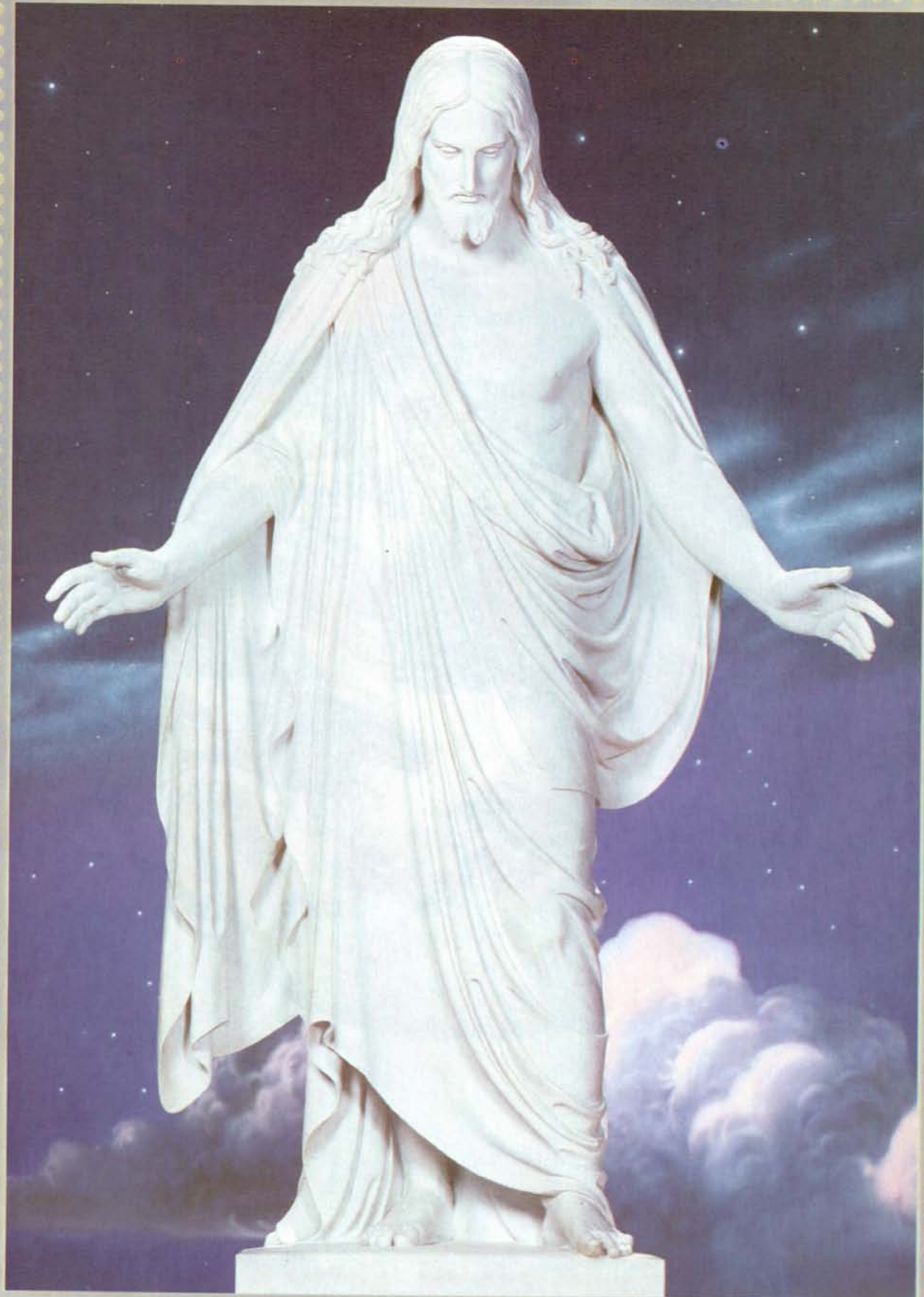




사진 : 미국 항공 우주국의 여기를 받아 게재함

성도의 빛의 발행인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헝클러, 토마스 에스 몬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 정영화: 보이드 케이 매카,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빌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날스, 알란 에이치 옥스, 영 리셀 블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올 슬러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린드
 고문: 제이 이 잰스, 존 엠 매드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니이트
 기획과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펠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로야버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의 차비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의 보조: 올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디젤, 디앤 워커
 편집 보조: 케니퍼 그리스우드
 편집/제작 부장: 매리엔 미턴데일
 제작 보조: 베스 테일러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이시카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칼렌
 디자이너: 새리 록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엔지니어: 제이 크리스티슨, 테니즈 커버, 래드 윌 피터슨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스

통 권: 제 385호, 제 39권, 제 4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2-3166
 발행일: 1998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권
 편집인: 송무광
 발행소: 알말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정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층은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빛 해외 구독료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오드/지부/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6-0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알말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 기관지의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 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시모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헝가리
 격월간: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 불가리아어, 세부어, 체코어, 피지어, 갈바르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1998년 알말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 소우. Printed in Korea.

April 1998 no. 4.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4.0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nd new address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우리 모두에게 속함

1996년 12월호 테르 스테른(독일어 판)에서 러시아 로스토프 선교부에서 봉사했던 펠릭스 판 크라토프 장로의 애독자 편지 기사를 읽고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든 다섯 살의 회원으로서 많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기쁨을 경험하였는데, 이번에 러시아 사람들이 이 잡지와 여기에 실린 진리의 간증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그들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오랫동안 소망하여 왔습니다. 교회 잡지는 우리와 지금 우리에게로 속하고 있는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마가렛 그라우
 스위스 베른 스테이크
 프레이부르크 오드



그분의 팔은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얼마전 저는 1997년 4월호 테르 스테른(독일어 판)을 받았습다. 보통 때와 다름없이, 잠시 바쁜 일손을 멈추고 짬을 내어 이 잡지를 읽었습니다. 어린이 란 표지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소녀를 품에 안고 계시는 그림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어른이고 두 자녀의 어머니이지만, 그 순간에는 제가 바로 안전하게 구세주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소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그림은 그날 하루종일 제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다. 두 팔로 자녀들을 감싸 안고 제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아이들이 저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욱 근사한 일이라

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를 드릴 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주님이 정말로 저를 팔로 감싸고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안함을 가슴 가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넬리 프렌트 펠릭스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테이크
 도드레히트 지부

마음의 변화

교회에 들어온 지 3년이 넘는 회원입니다. 이곳 러시아의 다른 많은 말일성도 젊은이들처럼, 제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면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우리는 리아호나(러시아어 판)를 읽으면서 도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카리야나 보도보조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남 지방부
 아브토보 지부



우리 구세주의 사랑

저는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의 기사들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표지 그림을 보는 것도 무척 좋아합니다. 저에게 특별하게 감명을 준 것을 한 가지 든다면, 1996년 1월호의 표지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1996년 1월호 표지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이 너무나 좋아서 한참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멜리스 햄테즈 데 모타
 베네수엘라 엘 티그레 지방부
 파리아군 제2지부



“보라 네 어머니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어느 여름날, 저는 마침 한적하던 필리핀의 미군 전몰 장병 기념 묘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열대의 대기에 경건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손질한 넓은 풀밭 한가운데는 대부분 젊은 나이에 전사한 병사들의 신원을 알리는 묘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위령비에 새겨진 이름들을 차례로 읽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촉촉이 젖어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이며, 마음에 차오르는 긍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치른 자유의 값비싼 대가와 큰 희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감히 싸우다 장렬히 숨져간 용사들을 그리다가 그들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귀중한 자식이 희생 당했다는 비보를 손에 들고서 비탄에 잠겼을 이 전몰 용사들의 어머니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누구인들 제대로 어머니의 비탄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어머니라는 고결한 역할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주님의 신뢰 가운데, 어머니는 주님의 손을 맞잡고 사



구세주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받으시는 가운데 그분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내려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로 걸어 내려가, 여러분과 저를 빛 가운데로 오도록 하셨습니다.

내 혀에서 나오는 가장 거룩한 말로도
내 심령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생각으로도
나 그 이름 찬양하기에 오히려 부족하네.
그 무엇보다도 거룩한 그 이름을.
그 사랑 처음으로 받았던 유아 때나,
성인이 된 지금에도 여전히 같은 사랑을 보네.
경건히 그 이름을 속삭여 보네.
어머니란 그 축복된 이름을.

(조지 그리퍼트 페더, "어머니란 이름", 말일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 모음집, 잭 엠 리온 외 다수 편집, [1996], 218쪽)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유형의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첫째, 잊혀진 어머니, 둘째, 기억되는 어머니, 셋째, 축복 받은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받는 어머니입니다.

잊혀진 어머니

니무나도 빈번하게 "잊혀진 어머니"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설 요양원이 넘쳐나고 있고, 병원 침대마다 만원이지만, 무수한 나날이 흐르고 ~ 흔히 몇 주, 몇 달이 흘러가도 ~ 어머니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령에 홀몸으로, 오지도 않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우두커니 창 밖을 바라보거나, 혹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져오지나 않을까 기다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그리움의 마음을, 그 외로운 가슴에 에이는 고통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까? 행여나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전화벨 소리가, 목소리가 들리나 않을까 귀를 기울입니다. 즐겁게 아들의 미소와 딸의 포옹과 손자의 "할머니, 안녕 하세요"하는 쾌활한 인사를 듣는 이웃을 보면서 그러한 어머니는 마음에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어머니를 여러 방법으로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타락하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진정 우리는 어머니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설 요양원의 원장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복도에 서 있었는데, 그녀는 건너편의 화평한 거실에 모여 있던 예닐곱 명의 할머니들을 일일이 가리키면

서, "저 분이 헨슨 부인입니다. 부인은 딸이 매주일마다 오후 세 시면 방문을 와요. 그 오른쪽에는 피크 부인인데, 매주 수요일마다 뉴욕에 있는 아들한테서 편지가 옵니다. 읽고 또 읽고 하죠. 그러곤 아주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해요. 하지만, 저기 캐롤 부인 보이시죠. 저 부인에게는 가족들이 전화도, 편지도, 방문도 일체 하지 않아요. 참을성 있게, 그녀는 이 소홀함을 흔히 들을 수 있지만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모두가 바쁜 게지.'라는 말로 정당화하곤 하죠."

그런 식으로 한 숭고한 여성을 "잊혀진 어머니"로 만드는 모든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현명한 권고를 주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칭송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22) 잊혀진 어머니를 기억되는 어머니로 만들 수는 없겠습니까?

기억되는 어머니

사람들은 어머니를 기억할 때 악에서 돌이켜, 보다 훌륭한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남북 전쟁을 통해 명성을 얻은 히킨스 대령은 남북 전쟁 중에 있었던 가장 주목할 만한 용기에 대해 들려 달라는 요청에, 자기 수하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용감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일상 생활에서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빠져들던 탐닉에 결코 물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삼페인을 곁들인 만찬에서, 사람들이 얼큰하게 취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취기에 장난 삼아 이 젊은이에게 축배를 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창백하지만 결연한 자세로 일어나 이렇게 외쳤다고 히킨스 대령이 전합니다. "신사 여러분, 저는 물로써 대신할 테니 여러분은 원하시는 것을 마시도록 하십시오. 자, 건배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어머니를 위하여.'"

그 순간, 얼큰하게 취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상한 마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용히 건배를 하였습니다. 웃음소리도, 노래 소리도 잠잠해지고, 하나 둘씩 그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억의 등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란 이름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린 것입니다.

제가 소년이었을 때, 주일학교 모임에서 어머니의 날을 기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어머니에게 조그만 화분을 선물로 드리고 나서 조용히 앉아 맹인이던 멜빈 왓슨이 피아노 곁으로 가서 "내 훌륭한 어머니"란 노



노령에 홀몸으로, 오지도 않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우두커니 장 밖을 바라보거나, 혹은 우편 배달부가 편지나 가져오지나 않을까 기다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그리움의 마음을, 그 외로운 가슴에 예이는 고통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까?

래를 부르는 것을 꿈꾸듯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님이 우는 것은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눈물이 축축이 배어나 뺨을 타고 흘러 양복의 옷깃으로 떨어지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왜 어른들이 모두 조용히 앉아 있는지, 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는지, 의아해 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압니다. 바로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때문입니다. 모든 소년 소녀, 아버지와 남편들이 마치 마음속으로 이처럼 맹세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나의 그 훌륭하셨던 어머니를 기억하리라.”

수년 전에 저는 중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남자에게서 그분의 가족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를 비롯해 그의 형제, 자매들을 낳아 주신 홀어머니께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그 집에 모여 커다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승에서 고이 간직하여 오셨던 보물들이 담긴 작은 철제 상자가 경건하게 개봉되었습니다. 보관된 물품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에서의 결혼 증서가 나왔습니다. “오, 이제 어머니는 아빠랑 함께 계시는 거야.” 우리 형제들이 차례로 인생의 무대로 들어섰던 그 소박한 집의 증서가 나왔습니다.

그 감정가는 어머니께서 그 집에 부여했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간의 자취가 배어 있는 노란 봉투가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겹봉을 열자 그 안에서 손으로 만든 발렌타인 카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의 서툰 필체로 “엄마, 사랑해요.” 라는 간단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가셨지만, 성스러운 어머니는 남기신 유물들을 통해서도 자녀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함이 그 집에 깃들고, 가족 모두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공경하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축복 받은 어머니

“기억되는 어머니”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축복 받은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거룩한 경전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숭고한 한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축복 받은 어머니”의 예로, 나인에서 비통에 잠긴 과부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친절한 호의보다 더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는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대” (누가복음 7:11~15)

이와 같이 우리의 선생이시며 모범이신 주님께서 보이신 그 큰 권세며 친절과 연민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고귀한 모범을 따르기만 한다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기회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가련한 처지를 볼 수 있는 눈과 비탄에 잠긴 마음에서 쏟아내는 무언의 탄원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민으로 가득한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눈빛이나 음성으로 나누는 대화뿐만 아니라, 구세주의 장엄한 방법에 따라,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모두가 “축복 받은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사랑 받는 어머니

마지막으로, “사랑 받는 어머니”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제 유년기의 기억에서 회상해 낸 것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 시는 심지어 오늘날의 어린이들도 좋아합니다. “누가 가장 사랑하는가?”라는 시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린 존이 말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고 나선, 할 일 잊고서, 모자 쓰고,
정원의 그네로 뛰어 가 버리죠.
엄마보고 물과 나무 나르게 하고서,
장미같이 아름다운 벨이 말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고 나선, 반나절이나 졸라대고 토라져 있죠,
벨이 놀러 가자 엄마가 좋아하실 정도로,
어린 팬이 말해요, “엄마, 사랑해요.”
“오늘은 뭐든 도울 수 있어요,
학교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않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기를 잠재우고,
조용히 걸어, 빗자루 들고,
바닥을 쓸고 방을 정돈하죠.
바쁘고 행복한 하루였어요.
어린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즐겁게 했으니까요,
다시 아이들이 말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세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어요.

세 명 중 누가 가장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어머니는 생각할까요?

(조이 엘리스, 말일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 모음집, 217~218쪽)

우리 각자가 어머니께 참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어머니께서 그토록 참을성 있게 가르쳐주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같은 숭고한 목표는 단지 우리 현세대에게만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여러 시대 중에서도, 우리는 용맹하고 선하고 고결한 힐라멘이라 불린 지도자가 이 천 명의 젊은 용사들의 진두에 서서 의로운 전쟁을 위해 진군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힐라멘은 이들 젊은 용사들의 활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그토록 놀라운 용기는 보지 못하였노라. ... 저들은 또 나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시여 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지 않으시리니 우리를 나아가게 하소서. ...

“나의 아들들은 싸워 본 경험이 없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 참으로 저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것을 모친에게서 배운 자였더라.

“저들이 모친에게서 들어 배운 말을 내게 되풀이하며 말하기를 모친들께서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하였더라.” (엘마서 56:45~48)

전투가 끝났을 무렵, 힐라멘은 계속해서 이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단 한 사람도 맞아 땅에 쓰러지지 아니하였으매 나의 기쁨이 충천하였으니, 참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힘을 입은듯 싸웠으며, 그렇게 기적적인 힘으로 [참으로 이토록 놀라운 힘으로] 싸운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못하였노라.” (엘마서 56:56)

기적적인 놀라운 힘,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합하여 대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역사로 점철된 성스러운 경전에는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부드럽고, 감동적이고, 확신을 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음의 한 예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두드러진 궁극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때는 절정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군병의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투구는 시이저에 대



우리 각자가 어머니께 참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한 확실한 방법은 어머니께서 그토록 참을성 있게 가르쳐주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충성심을 나타내고 있고, 그들의 방패는 그의 휘장을, 그들의 창은 로마의 독수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도 모여 있습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며 울부짖는 그들의 호전적이고 난폭하던 외침은 밤의 고요함에 찾아들었고,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배푸신 지상에서의 성역이 어느덧 그 극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순간에 이른 것입니다. 장엄한 고독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걷게 된 절름발이 걸인도, 듣게 된 귀머거리도, 보게 된 맹인도, 살아난 죽은 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명의 충실한 추종자들이 그 곳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받으시는 가운데 자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복음 19:26~27)

땅이 요동치고 큰 산이 무너져 내리던, 시간이 멈춰선 그 두려운 시간으로부터, -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 수 십세기의 시간을 흘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 그분의 간결하지

만 거룩한 말씀, “네 어머니라”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 온화한 명령에 귀를 기울여 기쁨으로 그 취지에 순응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잊혀진 어머니”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에 따른 선물로 “기억되는 어머니”, “축복된 어머니”, “사랑 받는 어머니”를 맞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러셨듯이, 다시 한번 손수 지으신 창조물을 살펴보고 “심히 좋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31절 참조)

우리 모두 진리를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합시다. 어느 누구도 결코 어머니를 잊어버리고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머니를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성스러운 분들, 곧 하나님과 어머니는 창조와 사랑과 봉사에서 협력자로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말과 행위를 통해 그 분을 축복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2.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어머니를 축복하고 사랑하는지 그 모범을 보이셨다.
3. “어느 누구도 결코 어머니를 잊어버리고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머니를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리차드 엠 롬니

풍경 사진 촬영: 리차드 엠 롬니, 인물 사진 촬영: 스텝과 기고자, 경전 상의 장면: 제너시스 프로젝트 사 제공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내 곁에 계시면
묻고 싶은,
갈릴리 바다
걸어가신,
재미난 일을 들려주세요
(어린이 노래책, 42쪽)

그분은 흠길을 걸으셨고 어부들과 배를 타셨습니다. 공회당에서 경전을 읽으셨고 언덕에서 설교하셨으며, 성전에서 돈 바꿔 주는 상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절름발을 고치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으며,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여행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축복하셨으며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근처 돌투성이 언덕(왼쪽)에서는, 구세주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것처럼(위) 한 목자가 양떼를 돌보고 있다.

다. 당시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가르침이 됩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와 그분에 관하여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에는 복음 원리가 가득합니다.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들”이라는 노래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다음 몇 쪽에 걸쳐 전세계의 청소년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배웠다는 교훈과 소감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구세주의 가르침에 심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누가복음 2:4~7)

저의 머리와 가슴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 저는 그분을



만고 경전 공부와 금식 및 기도를 통해 그분을 알아야 했습니다. 구세주와 그분의 출생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 생활에 진리와 행복이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달리아 이바라
에과도르 과야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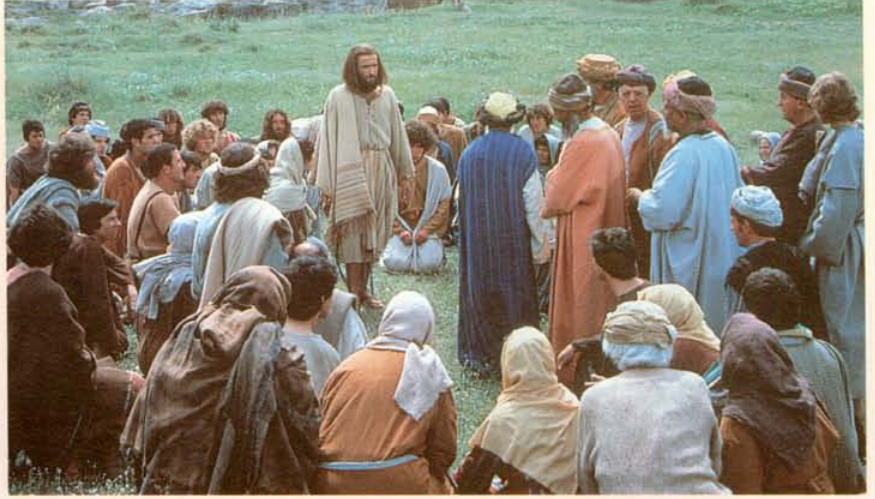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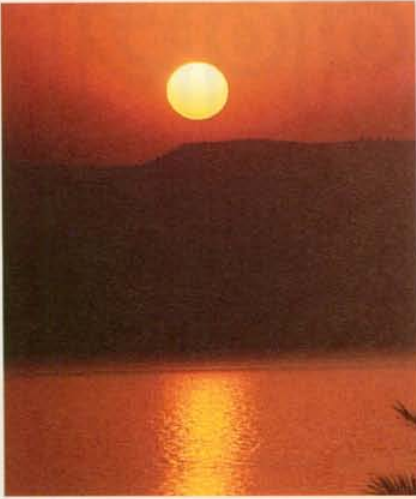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마태복음 4:18~20)



“저는 제 자신이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을는지, 그리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한편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전서의 어디를 읽어도 선



교 사업을 나가야 한다는 결론 말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전을 통해 제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제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룩사나 마르가리타 갈레야노 사나브리야
엘살바도르 케잘테페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마태복음 5:1~2)



“저는 산상 수훈을 좋아합니다.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신이 고양되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빛입니다.”

마리샤 사싱
필리핀 세부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 육체적으로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신앙과 그분의 모범을 통해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교사 중의 교사입니다. 우리에게 복음대로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니스카르 바리오스
베네수엘라 마투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태복음 7:24~27)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반석입니다. 저는 그

분의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자 노력한다면 이 생에서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 카마라
스페인 발데페이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마가복음 4:37~40)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때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때 이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예수님은 주

왼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모으시고, 그들에게 산상 수훈이라고 하는 고귀한 원리와 교리를 가르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태양이 갈릴리 바다를 비추고 있다.

오른쪽: 예리고로 가는 외길에서 강도들을 만나 쓰러진 사람을 구해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도 삶의 외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워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걱정 말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 모두 언제나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설리 호프 세바스찬
필리핀 파시그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28~31)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갔을 때 처음에 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



속으로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앙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신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니브 단 누네즈
필리핀 세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저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누가복음 10:30, 33~34)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그 비유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상황임에도, 이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민족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말일성도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논 파카르도
필리핀 파시그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마태

오른쪽: 노도와 같은 폭풍우가 배를 뒤집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도움
을 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파에 부딪힐
때 주님께 위안과 힘을 청할 수 있다.

맨 오른쪽: 예루살렘 성내에서 예수님은 가
난하면서도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
놓는 과부의 모범을 보셨다.

복음 13:3~5, 7~8, 22)



“저는 저희 학교에서 유일
한 말일성도입니다. 저의
급우들은 자주 저를 유혹
하려고 합니다. 특히 시험
볼 때 남의 답안지를 훔쳐
보라고 유혹하곤 합니다. 저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심판의 날에 밀로 분
류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베카 페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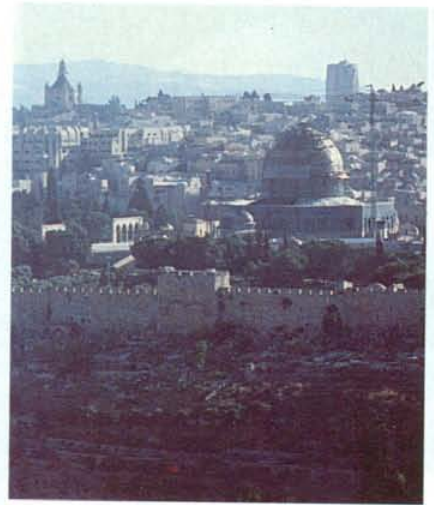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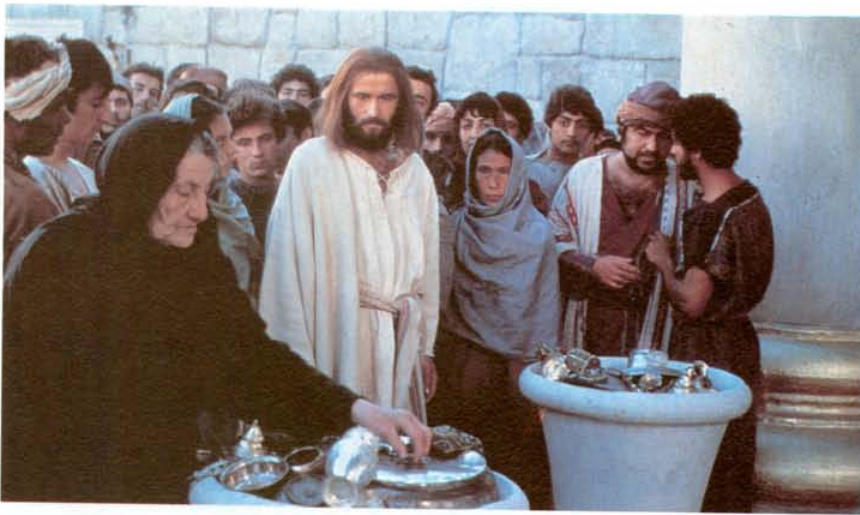
필리핀 세부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
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
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칭찬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
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7:37~
 40, 47~48)



"저는 얼마 전에 심각하지
 않은 조그마한 죄를 지었
 습니다. 하지만 제 경솔함
 에 몹시 당혹스러웠습니다.
 감독님은 주님께서 저의
 작은 실수를 용서하여 주셨다고 말씀하
 셧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평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다 만자로
 아탈리아 바리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
 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
 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19~20)



"저는 성찬을 취할 때 예
 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
 던 큰 고통을 생각해 봅니
 다. 저는 그분의 고통을 어
 떤 다른 사람의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우
 리가 신앙으로 간구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 기도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저의 빛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로돌포 아비나디 바스케스 구티에레스
 볼리비아 산타 크루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
 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
 기를 시작하여...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
 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
 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
 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요한복
 음 13:4~5, 12~15)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
 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라
 고 가르치시며, 복음의 거
 룩한 율법을 가르치기 위
 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
 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위대한
 모범을 통해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
 니다."

에리카 예게스
 베네수엘라 마투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깻세마
 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
 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6, 39)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누가복음 22:44)



“저는 생활하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낙담하게 될 때마다, 슬픔이 가득할 때마다, 또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많은 고통을 당하셨으며, 저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의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이 말레트 아알라 티 베네수엘라 마라카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갯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받으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 저는 그분이 저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제가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항상 제게 위안을 주십니다.”

에스테르 카로스 메리노 스페인 시우다드 레알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마태복음 27:35, 37, 46, 50)

“저는 너무나도 구세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분의 희생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

랑하시는가를 보여 주셨으며, 우리에게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로넬레 카발레 파나마, 파나마시티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누가복음 24:5)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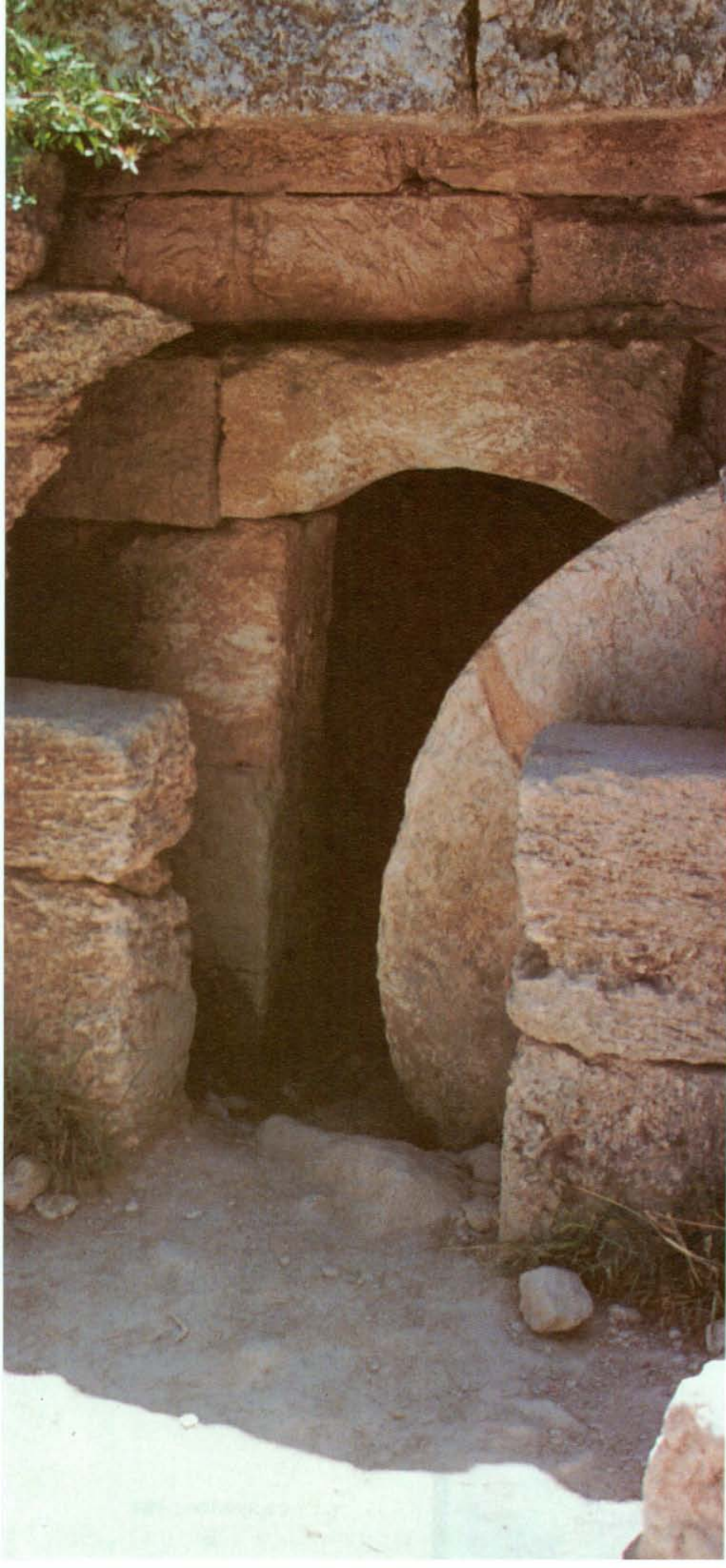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마태복음 28:5~7)



“구세주께서는 저에게 자비와 더욱 훌륭한 삶을 펼쳐 주셨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부활이 그저 이야기나 상징이 아닌 실재하는 것입니다.”

티볼 크루시 프랑스 곤세스/곤도와



맨 왼쪽: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몸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후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바치셨다. 왼쪽의 무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시기까지 잠시 구세주의 시신을 안치했던 곳과 비슷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저는 경전을 읽고 찬송가를 부를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가슴 속 깊이 느낍니다. 저는 순종과 그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큰 축복들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이미 해주신 모든 일과 지금 해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플라비아 카스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아직 다 못쓴 예수님에 대한 장엄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일지를 쓸 때 주님께에서 배운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그분이 살아 계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순종과 신앙으로 또 다른 이야기, 즉 그분의 승리에 찬 재림과 아버지의 왕국에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들과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 속에 포함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

구세주에게 부활절을

리사 엠 그로버

부활절은 가족들이 함께 전통과 기쁨을 나누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거룩한 날은 이 세계의 역사상 가장 성스러운 종교적 사건, 곧 우리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세주에게 초점을 두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 부활절 이전 한 달 동안 매일 경전을 읽는다.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니파이삼서에 나오는 구세주의 성역에 대한 기사를 읽는다.

■ 속죄를 주제로 한 가정의 밤 공과를 준비하여 부활절 전 주에 가르친다.

■ 감독 혹은 지부장과 워드 혹은 지부 음악 준비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청남, 청녀, 초등협회 또는 주일학교 반과 함께 특별 찬송을 준비한다. 찬송가를 배우거나 지나간 성도의 벗에서 곡을 찾을 수 있다. 부활절 일요일에 성찬식에서 그 노래를 부른다.

■ 총관리 직원들이 구세주의 삶과 속죄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연차대회 말씀을 읽는다. 이러한 말씀들을 성도의 벗이나 엔사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부활절 전 주에, 부활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날 하신 일에 관하여 매일 읽는다. (마태복음 21~28장; 마가복음 11~16장; 누가복음 19~24장; 요한복음 11~21장 참조)

크리어나 디아블로: 앙들리

점을 두고 기억함

■ 그리스도께서 이 곳에 계셨다면 하셨을 일을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 여러분의 삶에 속죄가 미치는 영향을 열거한다. 일지에 그 열거한 것들을 적어 두고 자주 참조한다.

■ 부활절 아침에 해돋이를 본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속죄 희생에 대해 생각해 본다.

■ 부활절 일요일에 특별 가족 간증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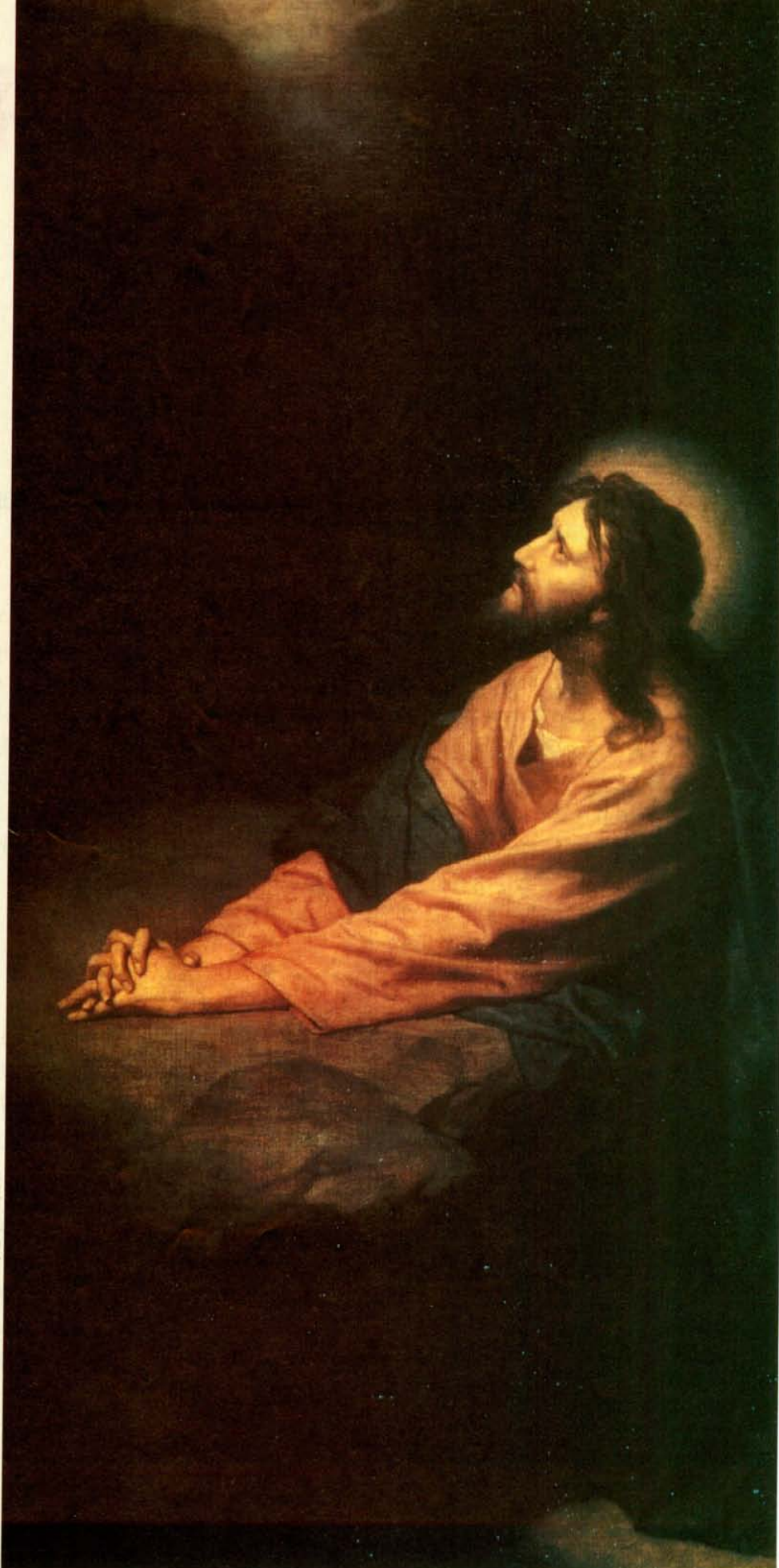
■ 부활절 아침에 가족 모두에게 구세주의 모습이 담긴 작은 그림을 선사한다. 그 뒤에 짧은 편지나 좋아하는 성구를 적는다. 성도의 빛에 나온 그림이나 교회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는 그림을 사용한다.

■ 성찬을 취하는 동안 구세주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 가족이나 워드 혹은 지부, 또는 비회원 친구들에게 구세주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진실 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 나타내 보인다.

■ 구세주의 속죄에 대한 성구를 암기한다. 여기에 몇 가지 성구를 제시한다. 누가복음 22:44, 요한복음 6:51, 요한복음 10:17, 로마서 6:9, 베드로전서 2:21, 니파이일서 11:33, 니파이이서 2:7, 모사이야서 26:23, 엘마서 11:42, 물몬서 7:5 □

그림: 아인라이 호프만, 7세마녀 동심의 그리스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함

로버트 엘 밀렛

자신의 신성한 근원과 유산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피하게 된다.

최 근 나는 큰아들과 함께 프로 야구 시합을 관람한 적이 있다. 우리는 유명한 선수들을 볼 수 있어 짜릿한 기쁨을 맛보았고, 멋있게 펼쳐지는 경기를 보며 마음이 들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모든 것이 좋았지만, 기분을 상하게 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났다. 그것은 일부 관람객들의 말씨였다. 경기가 시작된 지 30분 가량 되었을까, 우리 뒤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경기를 보면서 긴장과 승리의 열정에 사로잡혀 불경스러운 말을 마구 하는 것이었다. 그 뒤 세 시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저주와 찬사의 용어로 쓰는 등, 거칠고 음란한 말을 계속 들어야 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오는 동안 말 그대로 몹시 불쾌하고 더럽혀진 기분이었다. 그때의 그 일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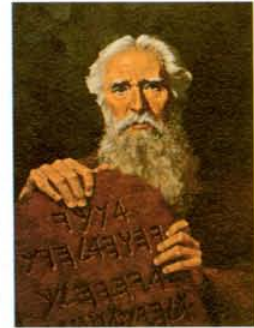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 따위는 하지 않을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지각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사람들이 시내 산에서 받은 십계명 가운데 인간 관계에 관한 계명은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그토록 조심

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 이유를 사람들이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의 말씨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 않게 우리의 행실이나 인품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의 영원한 생을 바라보는 시각- 즉, 성스러운 것들에 대한 우리의 사고 및 행동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 번째 계명을 범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님의 이름을 받들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계였지만 우리가 태어난 세상을 별의 영광 상태로 타락시켜 놓았다. 이 별의 영광 세계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으며 겪고 있는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그분의 왕족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신앙을 행사하여 회개하고, 침례 받아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거듭난 자들은 모두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된다.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된 그들은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 자신들이 받드는 거룩한 새 이름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말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들 권리도,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릴 권리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이 영적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은 공의가 요구할 수 없는,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어떤 조치, 즉 속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전세에서 메시아로 예임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히브리서 5:9)이 되신 것이다. 아빈아다이는 이렇게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시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며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주를 믿으며 저들의 죄 사함을 받는 날을 바라는 자는 모두 저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모사이야서 15:1, 11)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아버지이시다. 따라서 신앙을 행사하여 회개하고, 침례 받아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거듭난 자들은 모두가 그분의 가족,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족으로 입양된다.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된(모사이야서 5:7 참조) 그들은 그리스도와 성약을 맺음으로써 자신들이 만드는 거룩한 새 이름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말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함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 전, 한 천사가 아담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라. 또 회개하며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모세서 5:8) 이는 그와 같이 행하도록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요구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고 예배하여야 하며, 아들의 이름으로 그분의 왕국과 영생의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땅에 복음이 존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한 권능을 택함 받은 종들에게 부여하시고 이 권능에 의해 자신의 이름으로 그들이 임무를 수행할 것을 승인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시대에도 영원한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교리와 성약1:20)[하셨다]. 이는 우리가 이행하여야 할 두려운 책임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우리가 만드는 축복된 이름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곧 주님의 말이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아버지의 이름과 자신의 권리로 와서 자신의 신성하고도 존엄한 사명을 수행하셨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셨으며,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분은 육체적인 병도 영적인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 주셨다.(마태복음 9:1~5; 요셉 스미스 영감역 누가복음 5:23 참조) 예수는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는 하나님 이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권세를 필요로 하

지 않으신다. 반대로, 주님의 대리자인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행하고 활동하도록 권능을 받는다.(빌립보서 2:9 참조)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있을 때에만 진심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왜 죄가 되는가?

1.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경스런 말이나 저속한 말을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됨.* 가장 흔하게 알려진 범법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를 뜻하는 말로 사용하는 일이다. 영어 단어 Profane은 어원적으로는 “성전 밖”을 뜻하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밖에서 사용하다”는 “신성한 장소에서 쓰여져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치 못한, 부정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적절한 뜻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으므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중죄로 여겼습니다...”

“가장 중한 형벌(사형)은 오래 전에 중단되었지만, 죄의 심각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50쪽)

음악, 서적, 텔레비전, 영화 등에 불경스런 말과 저속한 말이 늘어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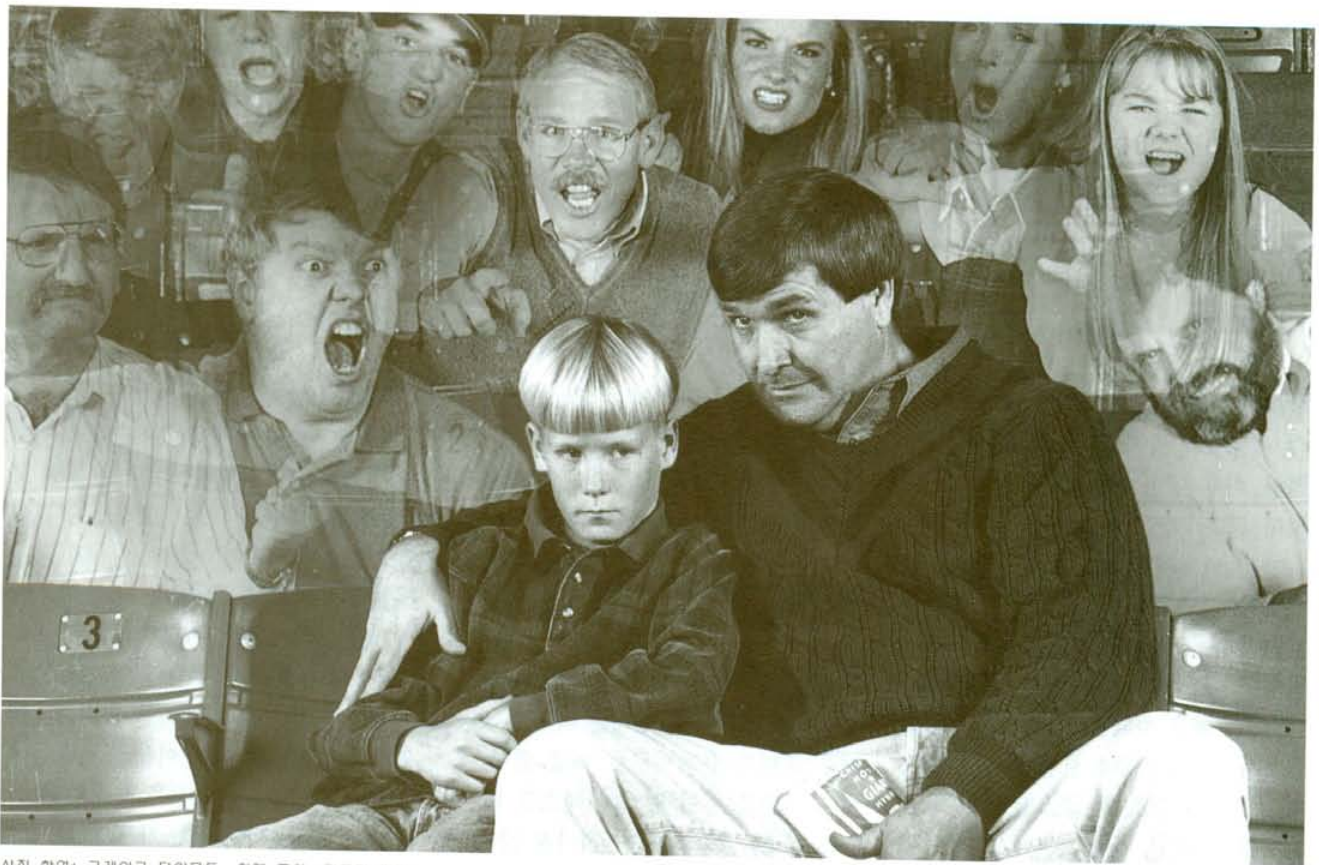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워렌 루지; 컴퓨터 편집



주님의 자녀들이 불경스런 말이나 저속한 말을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 가장 흔한 범법 행위의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를 뜻하는 말로 사용하는 일이다. 음악, 서적, 텔레비전, 영화 등에 불경스런 말과 저속한 말이 늘어난 것은 우리 시대가 저속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가 저속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저속함은 무례하고 상스럽고 음란한 일이다. 그것은 성스러운 것을 평범하게 또는 속되게 취급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인도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들이 성스러운 것을 소홀히 대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사회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무례한 언동이 늘어나며, 도덕 불감증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며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께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며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께 대한 예배(헌신)에 개인적으로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신성함과 거룩함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삼가는 마음 없이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거룩한 것을 서

슴없이 말하기도 한다.

현대의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자로 하여금 어떻게 나의 이름을 입술에 담을 것인지 조심하게 할지니라.

“보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는 주의 이름을 사용하되 아무 권한도 없이 헛되이 사용하여 이런 죄로 정죄 받는 자가 많음이니라.

“위에서 오는 것은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라. 또 신중히 그리고 성신이 이끄시는 대로 말해야 함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면 정죄 받지 아니”(교리와 성약 63:61~62, 64)[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시다.(교리와 성약 63:59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관한 말을 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신성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평범하고 저속하게, 바꿔 말하면, 아무 권한 없이 망령되어 일컫는 것이 된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우리가 권한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이 소위 불경스런 말로, 즉 증오심에 찬 저주, 분노에 찬 비난, 일반 토론에서 인용 부호로써 사용될 때 분명히 일어납니다.” 한편 옥스 장로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했다. “우리가 경건하게 가르치고 그것에 대하여 간증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권의 거룩한 의식을 수행할 때에는 우리는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55쪽)

2. **하나님의 자녀들이 맹세와 성약을 어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음.**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레위기 19:12)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성서 해설자는 세 번째 계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이 금기 율법은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맺어졌던 약속이나 계약을 어기는, 위증 또는 거짓 맹세에 엄격히 적용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어떠한 거짓이나 배신 행위에 관련되는 것을 허용치 않으신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즉 경박하게 혹은 함부로 일

컬어서는 아니된다.(제이 알 더멜로우, 성서 해설, [1936년] 원서, 67쪽)

고대에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조사를 할 때에는 증인들에게 정직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맹세를 하게 했다. 맹세에 관한 법의 절차는 신성한 말과 성스런 행위를 포함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맹세를 어기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에스겔 17:12~19 참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맹세를 그릇되게 이용하기 시작했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서를 어겨도 괜찮을, 신성치 못한 방법으로 맹세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맹세에는 보다 큰 책임이 뒤따르므로 맹세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마태복음 5:34~37)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말은 의로움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법률상의, 혹은 당사자들간의 협약에 있어서도 옳다고 한 것은 끝까지 옳다고 시인하여야 하고, 아니라고 한 것은 끝까지 아니라고 부

인하여야 한다.

성약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양자간의 약속이다. 복음의 모든 성약과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행되고 맺어진다. 인류의 구원 사업에 있어서는 그 밖의 다른 이름이나 다른 권능으로는 그 어떤 일도 행해 질 수 없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맺어지는 우리 자신의 성약을 의식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이 된다. 그것은 우리의 성스럽고도 엄숙한 의무를 가볍게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조롱 당하지 않는다.(갈라디아서 6:7 참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이 우롱 당하거나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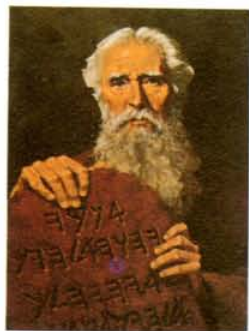
더 나아가, 복음의 성약을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신성한 의무가 있다. 부름을 거절하고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지 않는 것과 같다. 그것은 곧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결과가 된다.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다. 마지막 날에 “보응이 세상 주민에게 속히 임하리라...”

“너희 가운데 있는 자로서 나의 이름을 아노라 공언하나 나를 알지 못하며 나의 집안에서 나를 모독한 자에게 처음 이 일이 있으리라.”(교리와 성약 112:24, 26)

3.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경스럽고 경박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음.** 시내 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진 촬영: 스티브 번디슨, 페트 커버; 컴퓨터 편집



만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생각, 언어, 행동에 있어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성전에 새겨진 헌납문, 즉 "주님께 거룩함이다."

속성에 대하여 불경스럽고 경박하게 언급하는 일은 일체 금지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에, 깊은 경건성과 진실한 충성심을 수반하지 않은 일체의 기도도 역시 정죄 받는다는 사실을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애담 클라크의 성서 주해서, 랄프 얼이 요약함 [1967년], 126쪽

몇 년 전, 한 젊은이가 우리 워드의 성찬식 모임에 참석하여 연사로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워드에 와서 말씀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회중에게 말씀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몇 마디 농담을 하여 분위기를 활기 있게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몇 마디를 포함하여 유머스런 이야기를 서너 가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회원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 회원들

가운데 적어도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웃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5분 내지 20분이 지나자 그 젊은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끝냈다. "이제 말씀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젊은이의 이야기는 아마 다른 상황에서 했더라면 재미있고 즐거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성찬식 모임에 있었고 성찬식 모임은 신성한 예배인 것이다. 말씀 끝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맺는다는 말을 한다. 내가 이 말을 여러 해에 걸쳐 무수히 들어 왔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나는 그날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받드는 성스런 이름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왔던 사실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주제를 내가 임의로 선택하여 말씀을 했던 경우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마치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단거리 경주 자처럼 구속주의 이름을 부르고는 서둘러 마쳤던 때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또한, 마음은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구세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취했던 경우도 생각해 보았다.

당시 나는 불경스런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합당치 못하게 성찬 의식에 참석하는 일이나 부정한 마음 또는 부정한 손을 가지고 충실함을 가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는 것이다.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서 얻는 기쁨과 만족감을 감취서는 안되지만,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체험과 신중하고 사려 깊은 명상 끝에만 겨우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28쪽)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고 의롭게 받들 특권이 있다. 우리가 그

렇게 행할 때, 우리는 빛 안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 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 들이는 자는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언약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죄를 받게 되고 “징계와 심판”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교리와 성약 84:54, 58 참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 받거나 의식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 받는 것은 성스럽고 명예로운 일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부탁 받은 일에 대해 언숙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의 말과 행실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고 더욱 열성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위임된 성스런 임무에는 우리 마음을 진지하게 해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리인이니, 주의 심부름하는 자라. 너희가 주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 일이라.”(교리와 성약 64:29)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만일 우리가 영감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하거나 의식을 집행하거나 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인간들의 견해와 철학을 마치 교리인양 가르친다면, 또한 영적인 기회를 가볍게 혹은 소홀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다. “불경스런 말을 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 우리의 친구들이나 이웃들 혹은 자녀들이 우리의 입장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해서도 아니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일까 하고 의문을 품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앤사인, 1978년 11월호, 6쪽)

지상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롭게 받들으로써 우리의 신성한 생득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유산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6:19~20 참조)

만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 있는 성전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생각, 언어, 행동에 있어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성전에 새겨진 다음의 헌납문, 즉 “주님께 거룩함”이다. □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집, 곧…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교리와 성약 88:119)라고 지시하셨다. 질서는 주님 사업의 특성이다.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니니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교리와 성약 132:8)

교회 내의 질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 백성은 주님께서 친히 관리하시는 조직을 통해서 질서 있게 서로를 돕는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주님의 지시 하에 영감을 받아 지도력을 발휘한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이같이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보다 더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씀했다. “전지 전능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경우,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편하게 잠을 자듯 안심을 해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들이 잘못하여 여러분을 표류하게 할 경우, 주님께서 그들을 이 지상에서 재빨리 몰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1997년] 138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도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시켜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코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신권 안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신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조직체 내의 각급 관리 체계에는 지도력이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59쪽 - 일부 수정했음)

교회 조직을 통하여 봉사함

주님께서 신권을 통해 관리하시는 이 교회는 회원들이 서로를 보살펴 주도록 하는 한 조직화된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상호부조회는 그 조직 체계의 중요한 부분이다.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무겁게 짓눌리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여 주고 나약한 자들을 거들어 주어야 하며, 고통 받는 자들의 마음에서 절망감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제임스 알 클라크 편, 6권 (1965~1975년), 6:77)

한 자매는 새로운 와드로 옮긴 후 얼마

안되어 증병을 앓게 되었다. 이 병으로 그녀는 거의 2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지내다시피 했다. 그녀는 새로운 와드의 자매들이 상호부조회 조직을 통해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녀의 생활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는지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많은 상호부조회 회장님이 자주 방문해 주셨고 다른 자매님들도 매일같이 찾아 와서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의 생각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병으로 인한 작은 실수들을 웃음으로 넘기기도 하면서 서로 우정의 유대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이렇게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한 자매님은 나의 세탁물을 빨아 주고, 우리 집 개에게 줄 음식과 물을 새로 갈아주었으며, 자신의 손자들을 시켜 나를 병문안 오게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내가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 나를 위하여 맛있는 커스터드(과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병을 앓고 있는 동안 교회에는 거의 참석할 수 없었지만, 와드의 가족 분위기 속에서 가정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조안 줄리, 앤사인, 1994년 11월호, 51~52쪽)

사랑과 질서 안에서 배풀어지는 이와 같은 봉사는 언제나 주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징표가 된다.

- 주님이 교회의 우두머리임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 일인가?
- 교회의 조직은 교회 회원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베푸는가? □



“일곱 우뢰의 음성”



브리감 영 대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를 담대히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은 이제 새로운 멜기세덱 신민과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 교재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이 아직 출간되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 그런 나라의 경우, 두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멜기세덱 신민 형제들은 신민의 의무와 축복 제1과정이나 제2과정을 가지고 학습하고,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말일성도 여성상' 제1과정이나 제2과정을 가지고 학습한다.

18 77년 1월 1일, 다리가 좋지 않아서 안내원들의 도움을 받아 실내에 들어온 브리감 영 대관장은 세인트 조지 성전의 하층 헌납석에 모인 회중 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선견자이자 계시자인 이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

씀하였다. “우리는 지상에 살았던 그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일곱 우뢰가 치듯이 외치고 싶습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209쪽)

영 대관장은 사실 일곱 우뢰와 같은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친 일이 많았다. 때문에 그는 오늘날까지 “주님의 사자”라는 호칭을 받고 있다. 영 대관장이 가르치는 방법은 극적이면서 직설적이고 박력이 있었다. 그는 표현의 대가였다. 그가 가르친 원리들은 명료하면서 힘이 담겨져 있었고, 그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심오한 것이었다.

영 대관장은 그의 성역 기간 동안, 오늘의 교회 회원들과 그리 다를 바 없는 회원들에게 가르쳤다. 그는 어느 한 교회의 개종자들에게도 가르쳤는데, 그 개종자들 가운데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영 대관장은 또한 급속히 늘어나는, 진리에 굶주린 자들에게도 가르쳤다. 영 대관장은 이른바 “시온의 선한 배”에 그들을 승선시켜 활동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그 자리에 누



그림: 제임스 시 크리스찬슨, 브리감 영과 사자,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 제공

워 잠이나 자다가 지옥으로 가지겠습니까?”(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321쪽) 영 대관장의 헌신적 신앙은 다음 말이 보여주듯 확고 부동하였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거나 또는 물론 노력하다가 죽지는 않겠지만 죽[도록] 노력할 것입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327쪽)

교과 과정 개편에 관한 설명

금년 1월부터 실시된 새로운 멜기세덱 신권과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은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 하에

준비된 것이다.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르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해당 조직의 지도자들로부터 그들의 의무에 관하여 교육을 받는다. 두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는 두 조직이 뒤에서 설명되었지만 새로운 교재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으로 학습한다. 네 번째 일요일에는 두 조직이 대관장단이 지정한 제목들을 가지고 학습한다. 다섯 번째 일요일에는 두 조직 똑같이 그 지역의 신권 지도자가 선택한 제목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 또는 연차 대회나 스테이크 대회 관계로 이전에 빠뜨렸던 공과로 돌아가 학

습할 수 있다. 새로운 교과 과정의 종합적인 개편을 알아보려면 돈 엘 설의 “신권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의 주요 변경 사항”(성도의 빛, 1997년 12월호, 26쪽)을 참조한다.

영 대관장의 가르침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은 과거 대관장들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 교재 총서 중 제1권이다.

제1권의 48개 장에는 특정 시기에 해당하는 제목들과 어느 시기에나 해당하는 제목들에 관하여 브리감 영 대관장이 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각 장마다 2개의 편이 있는데, 한 편은 영 대관장

의 가르침과 그의 말씀이고 나머지 다른 편은 학습을 위한 제언과 질문 사항이다. 이들 각 편의 내용은 영 대관장의 가르침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짜여져 있다. 이 교재는 개인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교재는 각 말일성도 가정마다 비치된 복음 관련 출판물 장서에 한 귀중한 첨가 자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신간 책자는 두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뿔기세텍 신권 반과 상호부조회 반의 교재 역할도 한다. 두 조직이 이 교재를 가지고 동시에 똑같은 공과를 학습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이 공과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이 교재는 이전의 공과 교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회원들은 수업 시간 동안에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교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교사의 설명이나 강의가 아니라 반원들간의 토론이다. 그러면 반원들이 공과를 미리 읽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교재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교사는 반원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 해 줄 수 있는가? 교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가르칠 내용을 다른 자료에는 의존하지 않고 영 대관장의 말씀에만 의존할 수 있는가? 반원들에게는 어떻게 그들이 배운 원리들에 대해 토론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의 영을 지님”

영 대관장의 가르침은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만일 제가 인간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의무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저는 하늘과 땅 사이에-

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열릴 때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 구하라는 의무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44쪽)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가?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영적인 불꽃으로 거할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빛이 여러분 안에서 비취도록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320쪽)

“영원한 불꽃”, “주님의 촛불”, “일곱 우리의 음성” 등, 영 대관장이 사용한 이런 표현은 시각적 효과를 주는 강력한 날 말들이다. 이들 표현은 복음 원리를 예시적으로 설명하여 준다. 예를 들면, 영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할 때까지 기도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심지어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에도 계속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사실이다. “교회 회원 중 몇몇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리감 영 형제님, 제가 기도의 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즉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45쪽)

영 대관장이자면, 교사가 복음 교리를 넘치도록 가르쳐 주는 동안에 우리가 그저 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브리감 영은 주님의 영의 음성을 인식하라는 속삭임을 강하게 들은 사람이

요셉은 브리감 영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백성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라고 이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을 꼭 간직하라고 이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이 그들을 의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작고 고요한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주의 귀에 들으라고 하십시오. 그 음성은 그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며 어디로 가야 좋을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사망한 뒤 얼마 있지 않아서 브리감 영은 요셉 스미스에 관한 꿈을 꾸었다. 그 꿈에 예언자 요셉이 영 대관장을 방문하여 가르침을 주었다. 이에 대해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요셉이 우리에게 나아와서 매우 진지하지만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여 항상 주님의 영을 간직하면 그것이 그들을 의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작고 조용한 소리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것이 왕국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41쪽)

교회 내의 뿔기세텍 신권 정원회와 대제사 그룹과 상호부조회 공과에서 복음 교리를 학습하는 동안, 가르침은 영의 도움을 받아 행해져야 한다. 영의 도움에 의한 학습은 공과 토론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을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행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학습 방법은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자의 가르침을 읽을 때에도 역시 행해져야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



그림: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요셉이 영의 세계에서 와서 브리감 영을 방문함.

였다. “만일 여러분이 이 가르침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여러분은 의미 심장한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이 위대한 예언자가 가르치는 복음 원리의 참됨과 아름다움과 가치에 의해 여러분의 마음이 고양될 것입니다. 예언자의 가르침에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7년 12월호, 31쪽)

교재를 펴고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영 대관장의 가르침에 대해 애정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영 대관장의 가르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영 대관장은 이사야, 베드로, 야곱 혹은 요셉 스미스와 똑같은 힘과 똑같은 영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서로 지식을 나누어주기 위해(교리와 성약 88:123),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준비된 교사들과 함께, 영 대관장의 말씀을 학습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풍성한 말씀의 잔치—이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쓴다—에 참석하여 이 잔치 음식이 진리와 영적 만족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영 대관장의 가르침은 참되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영 대관장의 가르침

을 통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용납하기만 하면, 영 대관장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우리가 영 대관장의 다음 약속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전보다 더욱 부지런히 공부하고 숙고하고 기도할 것을 더 열심히 시도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 일으켜 줄 것이다. 영 대관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였다. “만일 여러분이 매일 매일의 삶을, 자신의 지식이 미치는 데까지 최상의 빛과 자신의 이해력에 따라 살아간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358쪽)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

새로운 멜기세덱 신권과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을 준비하고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여기에 소개한다. 아래의 방안들을 실행하면 교사 여러분은 토론을 이끌고 공과를 가르치는 동안 공과 교실 안에 성신이 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 여러분이 가르칠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를 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한다. 토론되는 교리에 대해 언제라도 여러분의 통찰력과 느낌, 그리고 간증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준비를 일찍 시작한다. 자료들과 연구를 위한 제안들을 읽는다. 도움이 될만한 성구, 질문, 이야기와

개인적인 실례를 찾아본다.

3. 공과 또는 토론을 통해서 성취할 목표를 결정한다. 반원들이 원리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개인 생활, 결혼 생활과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토론의 초점을 맞추도록 계획한다. 필요하면 반원들에게 공과를 돕기 위한 특별한 숙제를 준다.

4. 반원들이 각자 자신의 마음을 열어 성신의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교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게 하고 공과 시간에 자신의 견해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공과반에 참석하도록 한다.

5. 교재 또는 그 밖의 가능한 실물 공과, 이야기, 그림 등에서 인용하여 토론을 유도한다.

6. 교재에 있는 주요 원리들에 대하여 토론한다. 미리 선정해 놓은 구절을 반원들이 읽도록 한다. 반원들이 예언자의 가르침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시키는데 도움이 될 질문을 한다. 반원들에게 자신의 견해나 경험 또는 간증을 나누라고 부탁한다.

7. 토론된 원리들의 참됨과 그 원리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간증한다. 그리고 나서 반원들에게도 그와 같은 간증을 하도록 권유한다. 보충 교수 자료를 알아보려면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의 서론에 나오는 교사들에게 주는 지시 사항과 교사-가장 중요한 부름을 참조한다. 교사들을 위한 특별 지시 사항은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지침과 상호 부조회 지도자 지침에도 실려 있다.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

멜 기세택 신권 정원회와 그룹 지도자들과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반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새로운 교과 과정을 통하여 교사의 질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여기에 소개한다.

첫 번째 일요일

- 신권 정원회 지침과 상호부조회 지도자 지침에 나오는 제언 사항을 공부한다.
- 회원들에게 다음 사항들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
 - 선교 사업을 함.
 - 자신과 타인들의 현세적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짐.
 - 성도들을 영적으로 온전케 함.
 -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행함.
- 이 시간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행하도록 한다. 함께 상담함, 계획을 세우며 보고함, 기도하고 노래 함, 경전을 읽음. 예언자들을 따름.

두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

-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에 실려 있는 원리와 교리들에 초점을 두고, 이를 반원들이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돕는다.
-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을 행한다.
 - 교사의 강의보다는 반원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반이 되게 한다.
 - 다른 사람과 토론하기에 적합한 영적인 경험을 나누도록 반원들을 격려한다.
 - 공과 시작 전에 공과 준비를 위하여 해당 공과를 읽도록 반

원들을 격려한다.

- 반원들과 함께 성신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네 번째 일요일

- 1998년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에 실려 있는 대관장단이 정한 제목과 자료들의 학습과 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고 돕는다.
- 정해진 제목들을 반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격려한다.

다섯 번째 일요일

- 지역 신권 지도자가 결정한 대로 교육을 계획하고 지도한다. □





사진 제공: 격지 뉴스

1991년 6월 14일, 당시 러시아 공화국 부통령이었던 알렉산드르 루츠크이(오른쪽)가 러시아에서의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함. 그와 함께 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운데)와 핀란드 헬싱키 동 선교부의 게리 엘 브라우닝 선교부장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교외 지역



러시아에서의 신앙의 유산

러시아의 말일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

게리 브라우닝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1895년 무렵부터 러시아인들의 삶에 복된 영향을 끼쳐 왔다. 그 해에, 조한과 알마 린델로프 부부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때로부터 여러 해 전에 린델로프 형제는 고국 핀란드에서 어느 선교사가 자신의 모친을 가르치고 침례 주었을 때 전해 준 복음을 들은 적이 있었다. 얼마 후, 숙련된 금세공인이던 조한과 그의 아내 알마는 러시아로 이주를 했다. 그 후 16년이 지난 즈음에, 린델로프 가족이 스칸디나비아 선교부장에게 편지를 보내 요청함에 따라 아우구스트 호르룬드 장로가 러시아로 보내졌다. 1895년 6월에 그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의 네바 강에서 침

례를 받았다.

교회에 가입한 후, 린델로프 가족은 이따금씩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곤 했다. 1903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프란시스 엠 라이먼 장로가 러시아를 헌납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한번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또 한번은 모스크바에서였다. 그 해에 린델로프의 자녀 가운데 두 명이 또 침례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에 복음을 가져오는 데 린델로프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했었다. 1917년에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이 아니었더라면, 그 기대는 실현되었을 것이다.

1918년에, 부유하던 린델로프 가족은 정부의 재산 몰수 음모에 따라 노동 수용소에 감금당하고, 집과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다. 일곱 자녀 가운데, 생존자는 단 두 명으로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살아 남았을 뿐이다. 딸 둘은 망명 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세 자녀의 운명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게리 브라우닝, *러시아와 회복된 복음*(1997년), 7~12쪽.)

1917년, 영국에서 교회에 가입하였으며 후에 러시아어로 물문경을 번역한 안드레 아나스타시온을 비롯한 해외 거주 러시아인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가입하는 반면에, 1990년 종교 개혁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러시아에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종교를 인정하는 시기가 매우 더디었다. 그러나 1988년에 정부가 러시아 기독교 1,000년사 기념식을 승인함으로써,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보여준 첫번째 징후가 되었다. 종교 자유화의 문이 열리자, 70여 년 간 국가가 공식적으로 무신론

의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신앙의 유산을 지켜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양식을 얻고자 수세기에 걸쳐 내려온 러시아 정교로 돌아서고 있다. 그 외 사람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포함한 다른 기독교 신앙에서 소생을 구하고 있다.

1989년 10월에,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당시 오스트리아 빈 동 선교부장, 현재 칠십인 정원회 회원)와 스티븐 알 메감(당시 핀란드 헬싱키 선교부장)은 소련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관할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그 후 몇 달 뒤에, 레닌그라드(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에서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국민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기를 기원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1990년 7월에 이르러, 러시아에는 교회 회원이 156명에 달하게 되었다.

러시아인 구도자들과 개종자들은 위

압적인 장애물에 부딪쳐야만 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다른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름다운 건물과 정교한 예배 의식을 갖춘 러시아 정교로 대변되는 러시아 전통 기독교에 대한 배신이라는 일반적으로 팽배한 인식이었다.





위쪽: 현재의 세미오노프 가족. 아래: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에서, 성전장과 메이트론과 함께.
아래: 세미오노프 지부장이 비보르그에 세워진 러시아에서의 첫번째 말일성도 예배당을 헌납하였다.



사진 제공: 게리 브라우닝

이와는 대조적으로, 말일성도와 구도자들은 학교나 도서관, 주일에 세 시간 정도의 빌릴 수 있는 여타 건물 등에서 만났다. 교회에는 러시아어로 된 자료가 거의 없었고, 지역 지도자

들과 교사들은 모두 미숙했다. 흔히 십일조의 법과 순결의 법에 대한 교육은 지혜의 말씀과 함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신앙과 용기가 필요했다.

세미오노프 가족

세밀하지만 따스함이 결여된 종교 의식에 익숙하던 러시아의 허다한 구도자들은 의식이 개인의 기여와 영적 성장보다는 덜 중요한 교회의 간결한 의식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아무런 성상도 없는 교회가 있으리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더구나, 부엌에다 샤워실, 체육관, 오르간이 있는 큰 방과 많은 교실 등이 갖춰진 교회가 있으리라곤 전혀 예기치 못했죠.” 안드레이 세미오노프는 핀란드에서 교회에 처음 참석했던 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안드레이는 핀란드에서 가까운 러시아 도시인 비보르그에서 의사로 일한 지 얼마되지 않아 말일성도를 만나게



되었다. 1989년 여름에 안드레이는 핀란드인 말일성도 부부, 아이모 자코 자매와 벨리에 자코 형제와 카누 여행을 떠났다. 모닥불 가에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 나눈 토론이 안드레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인생의 목적이며 악의 의미, 내세의 가능성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으로 고민해 왔던 참이었다. 이 자코 부부는 안드레이에게 핀란드 라피엔란타에서 갖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유했다. 그 곳에서 그는 복음 선교사를 만났다. 안드레이는 선교사와 가졌던 토론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물질주의자의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영원을 추구하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씨앗, 나중에 물문경에서[엘마서 32:28~43 참조] 읽었던 그 씨앗이 제 영혼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라피엔란타에서 이 ‘좋은 씨앗’을 영혼에 심고 가방에 물문경을 담아 돌아 왔습니다.”

안드레이가 라피엔란타를 두 번째로 방문해 있는 동안, 선교사들은 그의 신앙을 키워주었다. “[그 방문에서], 외국 교회에 대해 마음에 지녔던 편견과 거리낌조차도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라고 그는 적고 있다.

비보르그로 돌아 온 그는 물문경을 연구했다. “저는 인간의 마음이 결코 그와 같은 것을 지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교육 정도나 지적 자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전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이는 1990년 2월에 15명의 레닌그라드의 형제들과 함께 한 대회에 참석했다.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할 때나 경전을 읽을 때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이나, 등을 타고 흐르는 짜릿한 감흥 없이 과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대회가 끝난 후 주시 캠퍼이넨[선교부장단의 한 보좌]이 내게 다가와 ‘형제님은 침례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의 모든 의심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입에서 불현듯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침례를 받았다.

한달 후에 안드레이는 장로에 성임되고 지부장으로 성별 되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 마리나를 침례 주었다.

부부의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많은 축복과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세미오노프 지부장은 이렇게 적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에서 우리 부부가 영원히 인봉된 이후 우리의 삶은 특별한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저는 이 성전에 러시아의 각양 각색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인용문은 러시아 회원들이 필자에 게 쓴 편지에서 인용함.)

세미오노프 지부장은 지부장으로 봉사하며 탁월한 역량을 나타내 보였다. 또한 그는 비보르그에서 첫번째 지방부장으로 봉사했다. 1996년 5월 4일에, 당시 유럽 동부 지역 회장이던 노인슈안더 장로의 지시에 따라 안드레이 세미오노프 지부장은 러시아에서의 첫 번째 예배당을 헌납했다.

에피모프 가족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입은 부상으로 비아케슬라브 에피모프의 부친이 사망하자, 그의 모친은 아들의 육체적, 영적인 육구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고자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다. 모친의 수고를 덜기 위해, 비아케슬라브는 15세가 되던 해에 레닌그라드 공장에서 정식 직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학업을 쌓아 나가기 위해, 그는 야간 학교에 다녔다. 비아케슬라브는 바쁜 가운데에도 자신의 영적인 열망을 추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는 과학과 종교라는 잡지를 읽고 있는데, 그 안에는 성경 구절들이 나오





죠.”라고 그는 적고 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를 갈망했어요. 종교를 공격하고 있는 그 잡지에서 저는 성경의 진리에 관해 알 수 있었어요.”

1971년에 갈리나와 결혼한 후, 비아케슬라브는 처가 식구들과 자신의 영적인 생각들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때 일을 이처럼 회상하고 있다. “처가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지 않더군요.”

비아케슬라브와 갈리나 부부 사이에 난 딸, 타마라가 다섯 살이 되던 해에, 아내와 딸이 러시아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비아체슬라프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기울이지 않으시며, 우리에게는 거의 눈길조차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낙담한 채로 집에 돌아와, 탁자에 앉아 보드카 한잔을 들이킴으로써 따뜻한 술기운이 전신에 퍼짐을 느끼곤 했죠.”

1990년의 봄날에, 타마라가 친구의 집에서 복음 선교사를 만났다. 처음에 비아케슬라브는 자신의 딸을 가르치는 선



위쪽: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선교부의 선교부장인 비아체슬라프 에피모프 부장이 그의 아내 갈리나와 함께 개척자 손수레의 모형물 앞에서. 왼쪽: 스톡홀름 스웨덴 성전에서. 아래: 에피모프 선교부장이 감독하는 복음 선교사들과 함께.

게리 브라운 사진 제공





사진 촬영: 아코프 아코비치 페트로프



위쪽: 올레그와 니나 바자스키 부부. 왼쪽: 그들의 아들, 알렉산드르. 아래: 상트페테르부르크 교외 지역에 있는 차르 왕궁터, 페트로드보레츠

사진 제공: 게리 브라우닝

교사들을 외면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해 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해 줄 수 있을까하고 의심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된 토론에서 제가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더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요.”

에피모프 가족의 삶에 곧 변화가 찾아 왔다. 비아케슬라브는 그 변화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는 비록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 자신의 삶에 몰두하고 서로를 위해 거의 시간을 내지 않았어요. 일상 생활의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갈라 놓았죠. 우리는 10여 년만에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좀더 많이 가졌어요.”



우리는 성경과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석달 동안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구했어요. 그러곤, 침례 받기로 결정했어요. 1990년 6월 9일에, 저희 일가족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침례 받아 들어 왔어요.”

에피모프 가족은 1995년 7월부터 복음 선교사로 모든 시간을 다 바쳐 즐거이 복음을 나누고 있다. 에피모프 형제가 러시아 에카테린버그 선교부의 선교 부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자스키 가족

니나 바자스키는 보로네슈 시(모스크바에서 400km 떨어져 있음)에 살고 있다. 그 곳에서 그녀는 영어 교수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어려서 하나님에 대해 배웠다. 하지만, 나이 사십이 되도록 그녀는 교회에 기보거나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남편 올레그는 물리학자인데, 그녀는 남편에 대해 이렇게 회고한다. “철두 철미한 무신론자였죠. 처음에 남편은 제 신앙과 기도에 재미있어 했어요...”

“1985년에 제 영적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어요. 비밀 경찰 KGB에 대한 두려움이나 직장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교회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991년 9월에 모스크바 근교의 즈베니고로드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학술회에 처음 참석할 수 있는 영예를 얻게 되었어요.”

학술회의 한 모임 중에, 니나는 러시아에서의 최근 종교 동향에 관해 묻는 한 미국 교수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종교에 관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진솔한 감사의 표현은 그 방에 함께 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질

문을 던졌던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온 로버트 더블류 블레이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곧 친분을 쌓았고, 니나는 그를 보로네슈로 초대했다.

1992년 봄에, 블레이 형제는 니나와 올레그를 방문했고, 그들과 함께 러시아 정교의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다. 그때 일에 관해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하지만, 그 예배는 내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다... 나는 낙담하여 집으로 돌아 왔고, 내 개인적인 죄 때문에 속죄의 느낌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1992년 여름에,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영어를 가르치러 왔다. 니나는 그들의 안식일 모임에 참석했고, 그 곳에서 느낀 사랑과 따스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저는 그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저는



제 아들 알렉산드르가 그들과 어울리기를 바랬어요. 이들은... 제가 아는 여느 사람들과 달랐어요.”

처음에만 해도 그녀는 새로 사귄 말일성도 친구들의 모범을 통해 드러나는 원리를 좇아 생활하면서 여전히 러시아 정교회 회원으로 남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곧 명백해졌다. 전통 신앙에 머무를 것이냐, 그녀가 것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냐를 놓고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선택을 놓고 한 순간도 마음에 평온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물론이 되는 것을 택한다면, 조상들의 전통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배

도로 말미암아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를 통해 간구하였고, 그 응답을 받았어요.

“어느 날... 강독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제가 해야 할 선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뚜렷한 음성이 말하기를 어떠한 사람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더욱 진보하며 보다 깊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경험했던 놀라움과 평온과 행복감은 제대로 형언하기가 어려워요. 학생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바로 전날 밤이던, 1992년 12월 15일에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제 생활이 바뀌었어요. 서는 보나 차별해지고, 관대해지고, 인내심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 생활에서의 문제들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전 난생 처음 제 삶에서 ‘고요한 행복’이란 말의 의미란 곧 자신과의 화합과 마음의 평온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 한 해 동

안 저는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전체에 의심하던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는 참되고 옳다는 것을 확실하기에 이르렀어요.

“아들과 제 모범 때문인지, 학생들, 선교부장, 혹은 선교사들과의 대화 때문인지, 무엇이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1993년 9월부터 교회에 규칙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94년 1월 15일에, 침례를 받았 습니다.”

바자스카야 자매는 침례 받은 후, 상호부조회를 포함한 많은 부름에서 봉사해 왔다. 그녀의 남편은 보로네슈 지부의 지부장이 되었다. 그들의 아들 알렉산드르는 라비타 리가 선교부의 선교사로 봉사했다.

렐리우킨 가족

비록 많은 러시아인들이 과학적 물질주의가 행복에 부적합하다고 여기지만, 일부는 종교적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꺼린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

세르게이와 이리나 렐리우킨 부부가 딸 마리 나와 함께



들은 영원한 진보, 곧 영과 정신의 계속적인 발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좋은 반응을 보인다.

세르게이 렐리우킨도 그같은 반응을 보인 사람 중에 하나였다. 세르게이의 부인 이리나는 그녀의 할머니 댁에 잠시 체류하는 동안 한 이름 있는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1990년에 이들 부부의 딸 마리나에게 그 교회에서 침례 받으라고 권했을 때, 세르게이는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저는 많은 종교 서적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앙인에게 교회는 그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종교 생활을 영위해 나갈 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침례 받기로 결심했어요.”

1990년 11월에 세르게이와 마리나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굶주림을 느꼈다. 1992년에, 사업차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시로 갔다가, 그 곳에서 세르게이는 말일성도 몇몇을 만났다. 그는 말일성도들의 신앙에 호기심을 느꼈지만, 함께 주일 모임에 참석하자는 그들의 초대에 응할 수는 없었다. 녀달 후에, 그는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되었다.

“퇴근 후 도시의 중앙로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가방을 둘러맨 두 젊은이가 제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신속히 걸음을 옮겨, 그들을 지나쳐 녹색등이 켜진 횡단 보도로 걸어갔어요. 횡단 보도를 건널 수도 있었지만, 한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느낌에 발길을 멈추어야 했지요.

“이들 두 젊은이들은 저를 뒤따라 와서 시내의 어느 거리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물어 보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그 길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약 10분 간 함께 걷는 동안, 이 선교사들은 세계 교회에 대해 소개해 주었어요. 우리는 대화 끝에, 제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며칠 후, 렐리우킨 가족은 선교사들과 함께 모스크바 남동쪽으로 675km 떨어진 사라토프에서 열린 교회의 모임에 처음 참석했다. “모임 분위기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기도하고 싶은 소망을 느꼈고, 선교사들이 두 번째 토론을 하기 위해 왔을 때 제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든 토론을 끝마친 후, 1992년 11월에 가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그들은 빠르게 복음을 배워 나갔고, 기꺼이 봉사하며, 다른 회원들과 기쁘게 우정을 키워 나갔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저희는 영적으로 발전했어요.”라고 사라토프의 첫번째 지부장으로 부름 받은 렐리우킨 지부장이 말한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성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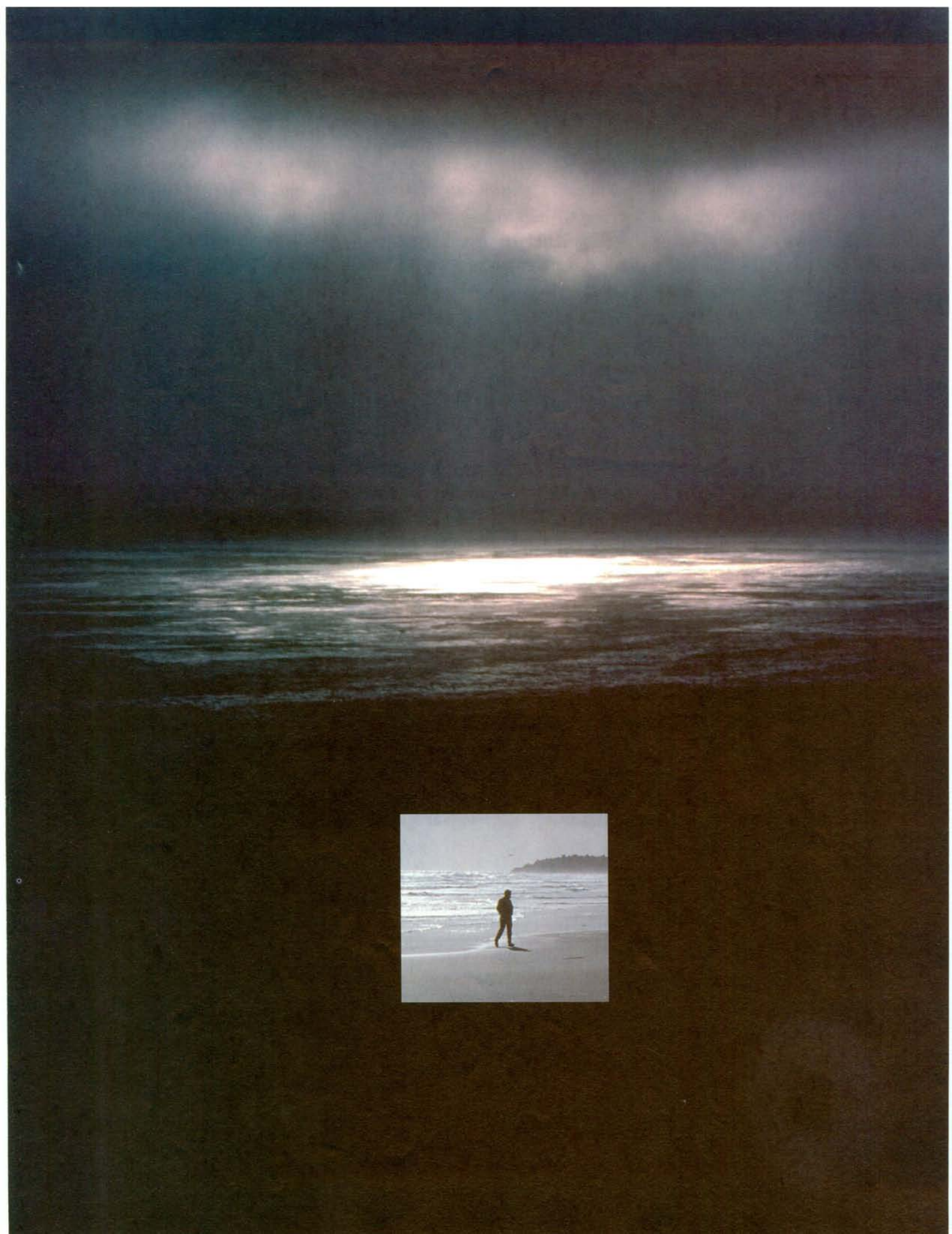
돕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족 침례는 이 가족 모두에게 행복과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일부 친척들은 그들을 근심 어린 마음으로 대했다. 렐리우킨 지부장은 이렇게 적고 있다. “침례 받은 후, 우리 가족은 친척들로부터 오해 받기도 하고, 심지어 시비를 걸어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해요. 비록 온전히 이해를 받기란 요원하지만, 우리부터 관용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1995년 3월에 렐리우킨 가족은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현재 렐리우킨 지부장은 사라토프에서 지방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예언의 성취

1843년 6월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하이드 장로와 조지 에이 아담스를 “광대한 제국” 러시아로 보낼 첫번째 두 선교사로 부름을 주었다. 그들의 지명을 공표 하면서, 예언자는 러시아가 “말일에 하나님의 왕국의 진보와 건설에 관해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일들이 연관되어 있다”(교회 정사, 6:41)고 선언했다. 하이드 장로와 아담스 형제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지만, 오늘날의 러시아 말일성도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한 기초를 놓고 있다. □



치유로 가는 여정



아동기에 학대를 체험한 교회의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치유로 나아가는 그들의 여정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각자의 여정에는 기도를 통한 권세, 순종을 통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희망, 사랑하는 신권 지도자와 기타 사람들로부터의 인도 등의 공통점이 조밀하게 짜여 있다.

나는 아동기의 육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에도 불구하고 살아 남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을 분노와 미움, 그리고 복수의 생각으로 파괴할 필요가 없다고 굳게 마음 먹었다. 구세주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신다. 나는 심판하고 그에 따른 징계를 그분의 손에 맡겨 두었다.

“저는 제게 일어난 일로 인해 심판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작용하도록 했는가 하는 것으로 심판 받게 되리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해 스스로에게 죄과를 씌우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저를 치유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 후손들에게 제가 배운 것을 가르치기로 또한 마음 먹었습니다. 저의 연못에 일어난 파장이 미래 후손들에게 널

리 퍼져 갈 것입니다.”

최근 교회 잡지부에서는 아동 학대를 경험한 독자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치유로의 여정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그 체험을 나누도록 부탁했다. 위에 기재된 응답과 같은 많은 응답들이 각 개개인만큼이나 독특했다. 하지만 각자의 여정에는 기도를 통한 권세, 순종을 통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희망 등의 공통점이 조밀하게 짜여 있었다. 이러한 영원한 진리는 사랑으로 보살피는 신권 지도자들의 인도와 자격을 갖춘 치료사들의 권고와 동반하여 치유로의 여정이 실현되도록 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동기의 학대는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혹은 정서적인 것이든지 간에 참담한 결과를 야기시킨다. 이

에 관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 온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성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부딪친 여러 유사한 장애, 곧 두려움, 분노, 불신, 의기 소침, 낮은 자긍심 등에 대해 언급했다. 무력감이 강하게 그들 생활의 모든 면을 침해한다.

어떤 회원은 이렇게 적었다. “회복으로 가는 여정은 학대로 야기된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결점에 맞서 분투하는 것은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때로 두려움을 불러오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



그림: 윌리엄 헨리 메그슨, *갯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지닌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 중에 결코 혼자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에 따라, 구속은 진실로 그들의 자유로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도다’(고린도후서 12:9)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의 길로 계속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자비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지닌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 중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에 따라, 구속은 진실로 치유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구세주는 그들이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다.

한 여성은 이렇게 적어 보냈다. “1995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홀런드 장로님은 구세주의 초라한 탄생과 그 삶의 다른 측면을 되돌아켜 본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사람들 곁에 계시서 항상 도와주시고 강화해 주십니다. 최종적으로 그분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곳에 계시며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69쪽)

“저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 그분의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 모두가 이 생에서 견디야 하는, 때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끔찍한 환경의 무구한 피해자로서 견디야 하는 고통과 학대와 비통한 역경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집으로 뛰어가 경전을 펼쳐들고 구세주의 십자가에 달리심에 대해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놀라운 경전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보라, 이는 주 너희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런고로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 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교리와 성약 18:10~11) 주님은 단지 백성들의 죄악만을 대신해 죽음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도 겪으셨던 것입니다. 학대 받은 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사랑과 희망과 기쁨을 느끼고자 분투하는 이들에게 기도는 그들에게 생명선이 됩니다.

배운다는 것, 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제 치유는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기도 - “읽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일단 속죄의 권세를 인식하고 나면, 더 한층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는 것이 치유 받는 데 있어서 하나의 주요한 과정이 된다. 하지만 의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아동기 때 제게 가해진 일로 인해, 제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 원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어요. 그분을 멀리서 경배하는 것이 훨씬 쉬웠죠. 제 생각에는 주님은 저같은 것은 실로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했어요. 저는 것처럼 끔찍한 일을 경험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하심 가운데, 제가 참으로 누구인가를 아신다면 혐오하시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과 사랑과 인도를 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최선의 치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진실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자유의지를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대로 인한 비극적 상처를 치유함”,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32쪽)

도움을 간구하는 이는 위안과 인도를 받는다. 어떤 남성은 이 같은 편지를 보냈다. “저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읽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로 난생 처음 기도하기 시작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열심히, 자주 기도했습니다. 제가 겪는 고통이 경감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 기도의 응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응답과 안위를 간청하자, 그분은 그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제 생활에서 복음 원리를 실제로 적용했습니다. 그 원리들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사랑과 희망과 기쁨을 느끼고자 분투하는 이들에게 기도는 생명선이 됩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았고, 그로 인해 가장 힘겨운 역경들을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자, 죄책감이며 의기 소침, 낮은 자긍심 등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고, 제가 진실로 도움을 구할 때 성신은 저를 안위해 주었습니다.”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여”

일단 기도라는 교통의 채널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영은 개인을 회복으로 가는 여정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때로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진리와 사랑의 원칙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어느 독자는 그 과정에 보다 깊이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적어 보냈다. “12월의 어느 추운 저녁에, 주님을 믿고 신권 축복과 경전을 통해 그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진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진보는 물론이고 저의 감성적이고 영적인 건강까지도 이 원리를 축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여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은 세상 경험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것들을 믿게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많은 간구와 눈물의 시간을 통해 엘마서 32장 27절에서 그 응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깨어나 너희의 능력으로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며

아주 작은 신앙을 품어 보려 할진대,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겠다는 의욕이 내 말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참으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전에 약속되었듯이 그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마음에 그분 말씀 가운데 한 개의 작은 조각이라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제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에스겔 11:19)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제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을 따름

온 힘을 다해 낮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권 지도자와 상담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그들에게 친구를 신뢰하게 하는 영감을 받게 도울 수도 있다. 성신은 그들에게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성전에 가는 것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겨 줄 것이다. 매일 하는 경전 공부의 안정의 닦이며 영감의 원천이 된다. 필요한 경우, 진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나 치료사를 찾을 수 있도록 영이 도와주는 일이 빈번하다.

한 독자는 이러한 회고의 편지를 보냈다. “저는 제가 낮는데 없어서는 안될 은사들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신권 지도자들에게 인도되었어요. 도움을 간청하는 제 이야기를 듣고 대체로 신권 지도자들은 몹시 놀란 듯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는 영에 귀를 기울였고 영감을 받아 말하고 역할을 수행했어요.”

어떤 한 자매는 상호부조회에 보다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영감을 받았는데, 그녀는 그 곳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던 바로 그것을 찾을 수 있었다. “상호부조회는 제게 여느 재할 단체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말일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시고자 하는 가치와 우



신권 지도자: 크리스틴 데이비드

신권 축복과 축복사의 축복은 훌륭한 위안의 원천이 된다.

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단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곳에서 발견한 모든 기회들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빠짐없이 교회에 가는 것이 절대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어렵다면, 교회에 간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찬을 취하면서, 성신을 느꼈습니다. 제 아이들은 경전을 배웠고 영적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했습니다. 꾸준함을 통해 긴밀한 우정을 찾게 되었고 제 아이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성전 참여를 강조했다. “저는 성전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성전에서 12시간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곳에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편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세주의 사랑을 그 거룩한 건물 안에서 보다 더 강하게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전으로 오가기 위해 여행할 때보다 더 많이 물어보거나 애통해 하여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구세주께서 저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권 축복과 축복사의 축복은 훌륭한 위안의 원천이 된다. 어느 한 회원은 이렇게 적어 보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음울하던 시기에, 저는 언제나 제 축복사의 축복문에 나온 희망의 말씀들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에 대한 묘사로 이끌렸습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께 저처럼 형편없는 사람에게 그러

한 축복들이 참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제게 약속된 축복에 매달려, 언젠가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서 약속된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 간증은 자랐습니다.”

주님의 영은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에게는 외적인 치유의 원천으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치유의 원천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어느 한 자매는 이렇게 회고했다. “영이 제게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고 하면서 고무시켜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떤 학대든지 간에, 그 피해자가 아무리 잘 이겨냈다고 해도 그것을 완전히 잊을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와 고통을 떨어뜨리는 것만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억은 희미해 질 것이며, 의지가 다른 감정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단지 살아 남는 법을 배웠으나, 복음에 대한 제 간증이 자리잡힌 지금은,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계명

회복으로 가는 여정에는 용서해야 한다는 필수적인 과제가 가로 놓여 있다. 용서하라는(교리와 성약 64:10 참조) 계명을 실천하기란 꽤 힘들어 보이지만, 이 영원한 원리는 항구적인 평온을 가져온다.

어느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용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란 학대를 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해자를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또는 처벌에 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용서의 원리를 통해 제 자신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학대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결코 범법자를 사면시켜 주거나 범법의 심각성을 축소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의 짐을 털어 주고, 보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녀”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며 빠른 병고침의 방법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간증했다. (“병고침을 받음”,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9쪽)

자신들의 체험을 나눈 독자들이 모두 이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독자들은, 되풀이해서, 신앙과 순종으로 해결책을 찾았



그림: 제임스 제키스 조셉 터숏, 절름발이와 소경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며 빠른 병고침의 방법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간증했다.

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어느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의 지침은 힘의 기둥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계명을 따를 때, 제 삶이 향상되었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의의 확고한 기초입니다.”

어느 여성이 좋아하는 경전 구절은 니파이삼서 12장 44~45절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못된 일로 너희를 이용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고루 햇빛을 비추어 주심이라.”

그녀는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 “이 말씀은 제가 지상 부모에게 사랑 받지 못하는 아이로서 제 신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런 아이라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따르고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노력함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부녀 관계가 되었습니다.”

용맹한 영

가정 치료사이자 사회학 교수인 칼 프레드 브로드릭은 학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어린이에 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은 부분적인 답을 주었다. “여러 교회 부름과 가정 치료사로서의 직업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부 파멸로 치닫는 혈통에 개입하여, 그 같은 가족의 파멸의 사슬을 끊기 위해 용감한 영을 보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 흠없이 폭력과 태만과 착취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는 그들 내부의 독소를 ‘신진대사를 통해 해소할’ 힘을 찾아내며, 그 독소를 후세에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들 이전 세대는 파괴적인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들 후세대는 맑고 깨끗한 혈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그들을 일컬어 복되다 부를 것입니다.” (질의 응답, *엔사인*, 1986년 8월, 38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일성도는 희망과 자유를 찾아 왔다. 그들은 “밤이... 제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언제나 새벽은 찾아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회복으로 가는 여정에서 체험한 바를 나누고자 하는 말일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학대의 사슬을 끊는 과업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나음을 입고 성장하는 데 필요로 하는 인도와 사랑과 희망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적고 있다. “여전히 같같이 멀지만 진실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미래를 전망해 봅니다. 저는 매일 경전을 읽고 가족 기도를 해왔습니다. 아동기에 겪은 성폭행의 충격을 이겨내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적어 보냈다. “제게 복음은 닳이요, 유일한 안정이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희망과 나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시련이 제게 주는 긍정적인 것들을 배우고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비구름이 몰아쳐 와도, 아무리 밤이 길다 할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오며, 아침에는 언제나 기쁨을 보리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시편 30:5 참조)□



그림: 로버트 티 배렛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니, 인자 같은 분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니, 또 다른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첫째를 보내리라.” (에브라함 3:27)



“ 보 라, 이는 주 너희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런고로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 오게 하
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 회개하면 만인을 자기에게 이끌어
오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니라.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교리와 성약 18:11 13)



4 159891843201 1